

주요소식



청렴 방방곡곡 교육지원청



김해교육지원청, “7월 11일은 1=1, 모두가 동등해지는 날!”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하고, 존중과 배려의 수평적 조직 문화를 위하여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



밀양교육지원청, 학교장·소속기관장 청렴교육 실시

술선수범하는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기관장 청렴교육 실시



거제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청렴맞춤형 연수 ‘이순신에게 청렴의 길을 묻다’

충무공 이순신의 청렴정신과 리더십을 배우고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 기회 마련



하동교육지원청, 별천지 하동 아이들의 청렴이야기

학생들의 청렴 이야기를 한데 모아 종이신문을 발간 및 배부



진주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청렴공감토크

교육지원청이 강사와 학교간 방과후학교 소통의 가교 역할



사천교육지원청, 견우직년달 청렴서약식 실시

청렴서약식으로 공직자로서 부정 및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실천을 다짐



고성교육지원청, 자연을 품은 회의문화로 아이디어 확장

소통과 협력을 통해 청렴문화를 형성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간의 의견을 나누는 기회 마련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수요자와 공사관계자가 함께하는 청렴간담회 개최

교육시설에 대한 주인의식 고취와 책임시공 촉진 등 청렴문화 확산



의령교육지원청, 학생 자발적 참여로 빛난 청렴 작품 공모전 시상

자발적 청렴 활동 참여로 학교의 청렴에 대한 관심도를 높임

Q

공무원이 자신이 졸업한 모교로부터 직무와 무관하게 선배자격으로 후배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강의를 요청받은 경우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A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 등으로부터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강의가 아닌 경우에는 행동강령 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Q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A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함

Q

A기관이 B기관에 위탁한 교육과정에서 B기관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A

공무원의 외부강의는 요청서류에 근거하여 허용되므로(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0장) 원칙적으로는 요청서류에 드러난 요청자를 기준으로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임.(다만,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요청자를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임)

Q

책을 집필하는 것이 기고에 해당하는지?

A

책을 집필하는 행위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형태가 아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실기 위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Q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도 신고대상인지?

A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 되었으므로,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일인 2020.5.27. 이후 실시하는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는 사례금을 받지 않을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 상의 신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Q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도 신고대상인지?

A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 되었으므로,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일인 2020.5.27. 이후 실시하는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는 사례금을 받지 않을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 상의 신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Q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사전에 신고하는 것도 허용되는지?

A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일인 2020.5.27. 이후 실시하는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자가 요청자 또는 요청기관·단체의 이름, 요청 사유, 일시, 장소, 사례금 액수, 강의 주제 등 신고서에 적시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함

Q

교사가 휴직 중 하는 외부강의등도 신고대상인지?

A

휴직자의 경우에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신고해야 하며,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함

Q

공무원이 대학 출강에 대해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

A

대학 출강에 대하여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행동강령상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음(신고 의무 없음)

Q

공무원 A가 동일한 날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강의과목은 같으나 대상이 다른 강의를 요청 (각각 3시간) 받은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어떻게 되는지?

A

강의주제·과목이나 수강대상이 다르다면 각 1호의 강의로 볼 수 있으므로 오전강의와 오후강의는 각각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음.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 공무원 A는 1회 강의당 60만원(40만원+20만원(40만원 x 1/2))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오전·오후강의가 별개의 강의에 해당한다면 A는 각각 60만원을 한도로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임

Q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의한 외부강의에서 외부강의 관련규정에 의한 초과사례금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A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으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다른 외부강의등과 동일하게 적용됨. 따라서, 초과사례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함

시간의 소중함

이야기 1 노숙자의 행복

노숙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이다. 어쩌면 그들에게 마음의 상처만 없다면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노숙자의 얼굴은 비록 무표정하기는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우리의 지친 얼굴보다는 더 나은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였지만, 시간의 자유는 확실히 누리고 있다. 그들은 시간에 쫓겨 추운 아침에 가게문을 열 필요도, 월요병으로 가기 싫은 직장에 출근할 필요도 없다. 반면에 많은 사람은 늘 시간에 쫓기고 경제적으로도 빚에 허덕이며 살아간다. 노숙자들은 경제적으로는 원점이라도 유지하고 있다. 노숙자는 확실히 자신의 시간에 대해서는 자기가 주인인 것이다.

이야기 2 아이들이 원하는 것

아이들이 부모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비싼 장난감이나 근사한 식사, 비싼 과외나 외국으로의 여행이 아니다.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시간이다. 컵라면으로 식사를 때우고 동네 작은 문구점에서 천 원짜리 고무공을 손에 쥐어준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만큼 아이들의 일생에 소중한 추억과 삶의 버팀목이 되어 줄만한 것은 없다. 어쩌면 그 시간만큼 귀중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지 모른다.



이야기 3 시간의 나눔

직장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제한된 시간에 일하다 보면 누군가 무엇을 물어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 당장 내 일하기도 바쁜데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니다. 빠듯한 하루에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시간이 아깝게 느껴진다. 레일 라운즈는 '사람을 얻는 기술'에서 '사소한 부탁일수록 긴급히 처리하라.'고 하였다. 중요한 일은 나 말고도 나설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사소한 일이야말로 보통 사람인 내가 약간의 시간을 할애하여 그들을 위해 급한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일인 것이다.

직장에서 업무능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잃고 간다면, 결국 절반의 성공밖에 이룰 수밖에 없다.

때로는 혹독한 겨울도 필요하다

때로는 혹독한 겨울도 필요하다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보다 튼튼히 자라게 하는 자연의 방식이었다.



예를 들면 얼음은
약한 나뭇가지만을 골라서 꺾어버리기 때문에
강한 가지들만이 겨울을 이기고 살아남게 된다.
또 겨울은 알차지 못한 도토리나 밤,
호두 따위들을 쏘아버려
산속에서 더 크고 좋은 열매들이
자랄 기회를 제공해준다.

-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중 / 포리스트 카터 -

청렴한 당신에게 드리는 음악선물



Karla Bonoff - *The Water Is Wide*

유튜브에서 찾아 들어보세요.

이 노래는 17세기부터 영국의 잉글랜드 남부지방에서 'O Waly, Waly (아, 슬프고도 슬프도다)', 'Wail Wail (구슬피 울고 운다)' 등의 제목으로 구전되어온 민요입니다.

험난한 바다처럼 삶과 사랑은 모든 인류의 무한한 희망과 소망이자 쉽지 않은 여정임을 나타낸 노래입니다.

오늘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땀흘리는 당신을 응원하며,
청렴과 함께 행복한 8월 되시길 바랍니다.